양질의 제품 생산 위해 벌꿀 • 제품원료 엄격히 검사

꿀가공식품 전문업체 (주)꽃샘종합식품

이상갑 대표이사

"꽃샘 제품에 넣는 벌꿀은 맑은 새벽이슬의 꽃향기를 정성껏 담은 자연그대로의 고농도 순수한 벌꿀입니다"

천연꿀과 꿀차 등 꿀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꽃샘종합식품(경기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소재) 이상갑 대표이사는 1965년 어려운 시기에 당시 16세의 어린 나이에 꿀벌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는 양봉농가에 종업원으로 취직하면서 시작돼 현재 종합식품 회사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북 임실 출신으로 당시 어려운 농촌환경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머니의 권유로 몸에 좋은 꿀을 찾아 양봉농가에 취직했다. 그 당시 나이가 16세였다.

이상갑 대표, 꿀벌과 더불어 살아온 삶 올해 44년째 맞아

이렇게 시작된 꿀벌과 더불어 살아온 삶은 올해로 44년째를 맞았다.

이 대표는 양봉농가에서 6년 동안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습득하고는 직접 꿀을 생산하기 위해 독립을 결심, 벌통 5개로 양봉업을 시작했다.

그 후로 5년이 지났을 때 벌통은 500여 통으

보 크게 늘면서 꿀 양산에서 별 문제가 없었지만 판로가 막혀 고민하다가 시장개척에 관심을 갖게 됐다.

이 대표는 80년대 후반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다이어트 열풍이 불면서 꿀 소비가 급격히 줄자 소비확대를 하지 않고는 꿀벌 생산농가는 이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벌꿀을 이용한 식품개발에 나섰다.

전국 양봉농가에서 생산된 양봉산물을 위탁받아 식품회사와 제약회사, 유통회사에 대량으로 유통하면서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나서게 됐다

꿀유자차, 대추차, 아카시아꿀 등 벌꿀 · 차류 20여종 출시

현재 꿀유자차, 대추차, 매실차, 생강차 등 액상차 13종과 아카시아꿀, 밤꿀 등 꿀류 5종, 옥수수수염차, 둥글레차 등 잎차류 5종 등 20여 종에 달한다.

꿀유자차는 현대인의 기호에 알맞게 원형의 유자를 씨앗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썰어서 감미로운 벌꿀을 넣어 은은한 향과 맛을 살려 만들어진 우리 고유의 전통차다.

특히 좋은 제품만을 생산 유통해 국내외 소비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기 위하여 시설 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양질의 제품 생산 위한 벌꿀 • 제품원료 엄격히 검사

꽃샘종합식품은 지난 2007년 5월 국내에서 유일하게 최고 수준의 식품가공공장(3,135㎡ 규모)을 신축 준공하고 초현대식 위생시설과 최첨단 기계시설에 과감한 투자가 이뤄졌다.

1992년 창립하여 홈플러스를 만나기 전까지 꽃샘종합식품은 꿀류와 차류로 20억원 정도의 연매출을 올리는 소규모 식품업체였다.

그러난 지난 1997년 대구에 홈플러스 1호점이 생기면서 홈플러스 바이어는 꽃샘종합식품의 꿀제품이 업체규모가 가격대비 품질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홈플러스에 납품할 것을 제안한다.

PB(유통업체 브랜드)꿀을 만드는 생산업체로 낙점돼 20억원 정도에 그쳤던 연 매출이 2003년 100억원, 2004년 137억원으로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커져가는 홈플러스 점포수만큼이나 매출 또한 크게 급신장하는 업체로 성장하게 됐다.

더불어 외국 진출에도 성공했다. 외국 바이어들이 홈플러스에서 꽃샘종합식품의 꿀 제품을 샘플로 구매한 뒤 꽃샘종합식품에 거래를 제안해 현재 일본 홍콩 대만은 물론 미국에까지 연간 20억원 이상 벌꿀을 수출하는 업체로 발돋움하게 됐다.

홈플러스 38개점은 물론 꿀, 유자, 대추 등 많은 물량의 농산물을 자체 소비해 수출,

2001년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이 표창하는 석탑산업훈장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제품을 공급하는 업체로는 삼성 홈플러스, 삼성플라자, LG백화점, LG마트, GS25시 전국매장, 롯데마트, 롯데슈퍼 전국매장,

킴스클럽 전국매장, 코스트코 전국매장, 동방마트 전국매장 등에 유통하고 있다.

또한 국내 유수 제약업체인 동아제약, 영진약품에 납품하는 등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특히 지난 2006년 12월에는 꽃샘종합식품에 예상치 못했던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다.

2006년 12월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 생산 현장 방문

당시 한국을 국빈 방문한 빅토르 유센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꽃샘종합식품을 방문해 40여분간 생산현장에서 벌꿀 제조과정을 지켜보고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직접 맛본 뒤 돌아갔다.

이날 유센코 대통령이 벌꿀 가공업체를 찾은 것은 벌꿀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센코 대통령은 3대째 양봉을 가업으로 이어오고 있으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유럽양봉협회 회장을 맡을 정도로 양봉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갑 대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벌꿀은 5만여톤으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품질만큼은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며 "더우기 꿀차 등 꿀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유통망은 우리나라가 가장 커 유센코 대통령이 방문한 것 같다'고 말했다.

꽃샘종합식품은 현재 종업원 100여명, 연간 매출이 200억원 정도로 큰 업체는 아니지만 임직원 모두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자연과 인간을 소중히 생각하며 미래를 창조하는 기업, 이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기업, 아름다운 기업으로 성장 발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새해를 맞아 국민들에게 약속했다.

(한국식품의약신문 2009년 01월 09일(금) 14면)게재